

공동체 소식



설 합동위령미사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
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 합동위령미사

설 합동위령 미사 2월 3일(일) 오전 11시 /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친지, 은인을 위해 미사 봉헌합니다.

주님 봉헌축일 초 봉헌 안내(전례부에 신청)

미사 시작하며 초축복 예식합니다. 초 축복 예식 후 미사 시작합니다.

평일미사 안내

- 2월 5일(화), 6일(수), 7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명절 주간 미사 없습니다.)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캔사스 대교구 주관)

교육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구역조정합니다. 4개 구역으로 구역조정합니다. (게시판 참조)

모임을 하기 편리하도록 구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월 구역모임을 해주시고 구역별 구역장 선출 및 구역 개신 사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09일 맨하탄 공동체미사

오전 11시 St. Thomas More Church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37	513	160	"설날"
차 주	49	211	506	15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찬 (미카엘)	김정원(안젤라) 김지안(요한)
차 주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한나) 김정훈(로베르도)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요셉)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차 주	박태주(로마노)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 마르티노, 김대연 요셉
차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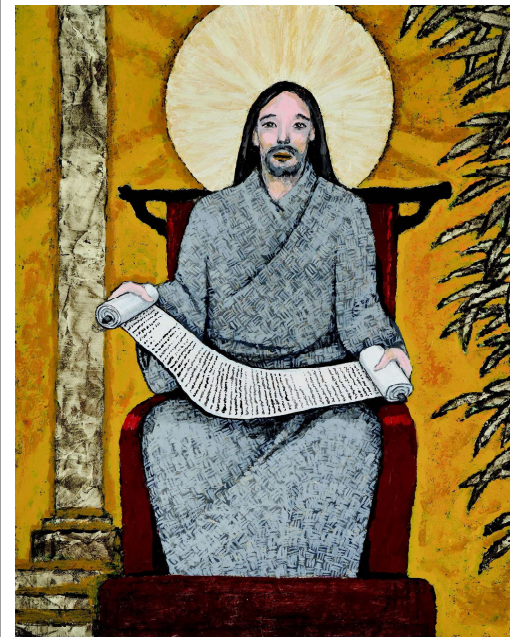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와 같음을 잊지 말고, 주님의 충실한 증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그림 묵상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놀람은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신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인간의 영혼을 타락과 파멸로 이끄는 악마를 복종시키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 시웁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제 2 독 서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명의 말씀

고독한 용기



해바라기는 노란색의 크고 둥근 꽃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 주고, 영양분 많은 까만 씨앗으로 우리 몸을 이롭게 해 줍니다. 해바라기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기 위해서는 해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해가 해바라기를 비추듯이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의 빛으로 비취주십니다. 그분은 '참고 기다리는 사랑, 친절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랑, 진실을 두고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제2독서)을 빚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빛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피어나서 이웃 사랑이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어 충만한 사랑의 빛으로 비취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희망, 사랑이란 꽃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자주 하느님을 등지고 우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불행과 고통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고자 당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자렛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빛을 전해주십니다(복음). 나자렛 사람들은 은총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합니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쓴소리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발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시면서 약하고 힘든 이들을 자비롭게 보살피주셨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비위를 맞추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랬던 것처럼(제1독서) 필요하다면 백성에게 맞서셨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꺼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분노마저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여론의 향배'보다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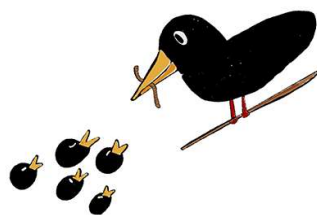
다수의 격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오만에 혼자라도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무

리를 지어 거친 목소리를 내는 이들 앞에서 진실이 맥을 못추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려면 고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의 소유자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곁에서 - 생각 없이 또는 그렇게 안 하면 왕따 될까 두려워 - 덩달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곁에서 무작정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뿌리를 깊이 둔 분으로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기에 진리를 위해라면 다수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빛 안에 머물면서 그 빛의 도움으로 고독하더라도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아기 새는 아는 거지.
부모 새 없이는 살 수 없다는걸.
아기 새는 절박하지.
먹이를 먹어 본 적 없는 것처럼.
아기 새는 바라보지.
부모 새의 소리 나는 방향만을.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걸.
아기 새는 아는 거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루카 4,2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올해로 24년째

처음 성당에 간 건 신앙심 깊으신 엄마의 뺏속에서부터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저는 미사 드리는 엄마 옆 마룻바닥에 앉아 뒹굴며 늘 함께했고, 초등학교 4학년 첫영성체 후에는 새벽에 눈을 비비며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썼습니다.

사춘기 시절 이성애에 대한 눈도 성당에서 떴고 당시 유행했던 브레이크 댄스도, 탁구 실력도 모두 성당에서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깊은 품속까지 들어가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중반에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때 저는 '진정 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며 20대의 호기로 건방울 떨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선 참 빠르셨습니다. 당시 연극을 하며 극단 생활을 할 때인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돈 한 푼 빌린 적 없는 제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봉천동 산자락서 자취하던 친구 집에 한 달을 숨어지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때 샀던 두툼한 성경책을 읽고 또 읽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달리할 게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저도 모르게 조건부 제안을 걸었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서게 해주시면 자기 전 매일 성경을 읽으며 잠들겠다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배반치 않겠다고....

올해로 24년째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읽었던 성경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는 거로 바꾼 거 외엔 지방에 가거나 해외 촬영을 갈 때도 성경책부터 꼭 챙깁니다. 지방 촬영에 가서 성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선 개신교 교회라도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배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주님도 절 챙겨주셨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늘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내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넌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느라 여태 오지 않느냐." 저는 오늘도 그분을 믿고 증거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힘들 때 꺼내서 읽었던 글입니다. (『서울주보』 2004.6.27)

'자신을 하느님께 던져 버리게!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게 그분은 그대가 아래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 안심하고 자신을 하느님께 던지게. 그분은 그대를 받아 거룩하게 하실 걸세.' - 아우구스티노의 고백 -

최재원 요셉 | 배우

기도묵상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 그것을 따르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 가정자 테클라 메를로 -